

“제2공항 건설,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악영향”

제주도의회, 21일 이석문 교육감 상대 교육행정질문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학교 24곳 소음피해 대책 요구 제주의국어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필요성 등도 제기

제주자치도의회가 21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선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제주의국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 필요성 등이 요구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8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이 강행되면 공항 예정부지 인근 학교 24곳의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교육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다세대주택을 건립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 만큼 학교와 지역발전, 정주여건의 직접적인 관계를 잘 알리라 본다”며 “제2공항 소음피해 학교임을 안다면 무로다세대를 지원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항 소음 피해는 이율배반적 관계”라며 “제주 현안에 대한 교육자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제2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학교의 소음 피해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제2공항 기본계획에 관한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의국어고등학교가 2025년까지 일반고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교육공론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의원은 “제주의국어고 일반고로 전환되면 읍면지역, 동지역 일반고 중 어디에 포함할지부터 평준화된 일반고 학생 수 적정 문제 등을 고려해 이해 당사자와 함께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12월 중에 관련 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시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설치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통합체험을 할 수 있어, 통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진행하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영역에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수교육원 설립은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 영역에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녀들 사이로 유명한 남방큰돌고래떼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변 바다에서 물질적응중인 해녀들 사이로 남방큰돌고래떼가 유영을 하며 지나가고 있다.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 가능해질까

대형화 허용 카지노 조례안 오늘 문광위 심의 성공사례 여론... 원안·조건부 동의 가능성 커

카지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리조트가 대세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관리감독은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

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우선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중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앞서 문광위는 카지노 이전·확장 시 기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열린 제377회 임시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했다. 세계관광 흐름인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을 공감한 대신 허가 및 관리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심의가 이뤄질 조례안은 원안 또는 조건부 동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내달부터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행정시 읍·면·동도 자체 운영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통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제주도는 예초와 시설물·수목물 정리하는 도로환경정비를 마무리했으며, 제설대책 사전대비 기간인 지난 10월 15일부터는 제설차재 구

입과 모래주머니 제작·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상황실은 제주도로관리과에 설치되며,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도로제설 준비와 적설시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관리,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결빙 취약구간인 공항 주변과 서광로에서는 각각 400m와 500m 구간에 염수자동살포시설이 운영되고, 산간지역과 경사도가 많은 아라동, 이도2동 등 8개소에는 염수 저장탱크가 설치된다. 또 민간 덤트럭 4대를 추가로 입찰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각각 2대씩 배치, 24시간 출동시스템도 구축한다. 송은범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꽃피는 새봄 같은 문학을 기다립니다

한라일보가 30년을 걸어오는 동안 곁에는 늘 문학이 있었습니다. 한라일보 신춘문에 덕분입니다. 다시, 새봄을 담은 문학을 기다립니다. 시, 시조, 단편소설 3개 부문에 걸쳐 2020한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 부문 및 상금
 - 시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로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시조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로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로 500만원(※200자 원고지 기준 80-100장)
- 마감 : 12월 13일(금)까지 (당일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63185)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교육문화체육부 신춘문에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 2020년 1월 1일자 한라일보 지면

[안내사항]

-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같은 원고를 다른 신춘문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 결정후에 '신춘문에 응모작 ○○부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원고 끝에는 이름(본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집이나 직장전화)를 써주십시오.
- 당선작이 없을 경우 해당 고로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을 뽑습니다. ※문의 :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 (064)750-223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UNESCO 총회 승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지난 6월 유네스코 사무국의 타당성 조사 시행, 10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통과에 이어 **11월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로, 2021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대상 훈련 및 국제보호지역 관리·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주도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체결 후 본격적인 센터 개관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